투표장 가는 길 2일 오전 신안군 압해면 가란도 주민들이 귀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숭의 선착장으로 나오고 있다.

신안 가란도 주민 90여명 배타고 차타고 투표

후보자 몰라 물어물어 한 표 행사

"글 못읽는 고령자 위한 선거 홍보대책 마련을"

2일 저녁무렵 신안군 압해면 가란도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오전 일찍 투표한 뒤 모내기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던 주민들이 식사를 마치고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장 김판술(77)씨는 "이번 선거기간은 후보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없이 유난히 조용했지만 결과가 궁금해 함께 투표한 주민들끼리 자리를 했다"며 "90여 명의 주민 중 몸이 아파 거동할 수 없는 98세의 노인을 제외한 전 주민이 투표에 나섰다"고 말했다.

가란도에는 40여 가구에 9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들이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이 압해도 투표장까지 이동하는 데 돕기 위해 도선과 승합차를 마련했다.

이들 주민들은 선착장에 모여 10여분 동안 도선을 타고, 승합차로 20여분 거리를 달려 압해면 제4투표장까지 가 어렵사리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가란도에는 유세를 위해 군수 후보 1명과 군의원 후보 4명이 찾았을 뿐이다. 유권자 수가 적은 데다 거리도 멀어 후보자와 운동원들이 선뜻 방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거정보를 오로지 선거홍보물과 TV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가며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신상정보를 알아갔다. 투표장에 들어가 8번이나 투표를 해야했던 이번 6·2 지방선거는 따라서 그 어느 선거보다 전남의 섬지역 고령자들에게는 '난관'이었다.

이모(70)씨는 "군의원이나 군수는 알겠는데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도무지 누가 누군지 잘 몰라 찍을 후보를 고르느라 애를 먹었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최서남단인 가거도와 흑산도, 만재도 등 전남지역 도서 낙도 주민들의 사정도 엇비슷했다.

신안군 흑산도에 거주하는 정모(65)씨는 "섬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해 인쇄홍보물만 보낼 것이 아니라 섬에 있는 방송시설을 통해 후보 신상이나 공약을 알려주거나 마을회관에 의무적으로 운동원을 보내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월드컵 흥분…돌연사 조심

심장질환자 새벽 경기 시청 위험
밤샘 관전 하려면 꼭 가족과 함께

월드컵의 계절이다. 경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심장병 환자는 자칫 돌연사에 빠질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때도 광주에 사는 사업가 M씨가 TV로 한국팀 경기를 관전하다 심장마비로 숨졌었다.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오봉석 교수는 "심장질환자는 응원에 따른 극도의 흥분과 긴장상태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데다 맥박수의 증가와 혈압 상승을 가져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상사를 당하는 경우가 더러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심혈관계질환은 새벽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새벽 경기 관전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체리듬상 평상시에도 새벽은 심장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인데다, 밤샘이나 수면부족으로 피곤이 겹치면 심장에 더 큰 무리를 줘 불상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소 심장질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새벽 경기를 안보는 것이 좋고, 피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열광적인 응원분위기가 형성되는 곳 대신 가족단위로 차분하게 경기를 시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전반전이 끝나면 TV를 잠시 끄고 흥분을 가라앉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축구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숨이 가쁘거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쓰러지는 상황 등이 벌어지면 지체없이 병원으로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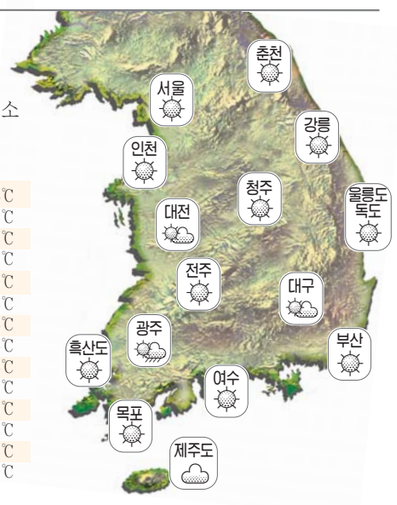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5시 19분 / 해짐 19시 42분 — 달뜸 --시 --분 / 달짐 10시 49분

한낮 자외선 조심!

가끔 구름 많고 오후 늦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다.



광 주	차차흐려져비	15/28℃
목 포	맑음	15/24℃
여 수	맑음	15/23℃
완 도	구름많음	13/25℃
구 례	차차흐려져비	14/19℃
해 남	구름많음	13/26℃
장 흥	차차흐려져비	13/26℃
고 흥	차차흐려져비	14/26℃
순 천	차차흐려져비	14/26℃
영 광	차차흐려져비	14/25℃
진 도	차차흐려져비	12/25℃
전 주	맑음	14/27℃
남 원	차차흐려져비	12/27℃
흑산도	맑음	13/1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6:05 18:03	11:38 23:27
여수	00:44 12:55	07:08 18:48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날 씨						
최저/최고	15/29	16/29	16/29	17/29	17/28	17/27

사이버머니 건 인터넷도박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사이버머니(게임코인)를 걸고 하는 인터넷도박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민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4(합헌)대 4(각하)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은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재판관은 "민씨의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씨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2007년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 제247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결혼하려면 男 1억337만원·女 5667만원 있어야

미혼 직장인 464명 설문

미혼 직장인이 결혼에 필요한 최소 보유 자산으로 남성은 1억337만원, 여성은 5667만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인사포털인 인크루트가 20~30대 미혼 직장인 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들이 결혼 최소 비용으로 생각하는 금액은 평균 1억337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응답자들은 평균 5667만원을 제시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남녀 전체 평균은 8901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 1억273만원·20대 5915만원이었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재직자 1억955만원, 중소기업 재직자는 766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할 때 가장 걱정하는 점으로는 '주택 마련'이라는 응답이 4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자녀계획 및 육아비 문제(29.8%)', '자녀 출산 후 직장생활 지속 여부(12.2%)'가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